



권력자를 돌연 불행에 빠지게 하는 ‘하마르티아’

최효찬
칼럼니스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 주인공의 운명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비행(非行)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마르티아(Hamartia)’에 있어야 한다. 비극의 주인공은 악덕이나 비행 때문이 아니라 하마르티아 때문에 행복한 삶이 불행을 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래 하마르티아는 궁술에서 나온 것으로 과녁에서 빗나간 것, 표적을 빗맞힌 것을 뜻한다. 여기서 하마르티아는 판단착오에서 비롯한 적극적인 죄악부터 단순한 실수나 과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하마르티아는 우연적이고 비이성적인 불행에 아무 이유 없이 내던져지는 인간의 운명에도 적용된다. 이 하마르티아는 카타르시스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가장 완벽한 비극작품으로 보았는데, 주인공이 겪는 하마르티아의 예로 오이디푸스 왕을 든다. 고대 그리스 비극을 대표하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의 왕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눈마저 찌르는 한 인간의 운명을 노래한다.



테베를 떠나는 오이디푸스를 안내하는 안티고네

이 비극은 테베에 신의 노여움으로 전염병이 창궐해 재앙에 빠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이디푸스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싸운다. 델포이의 신탁은 페스트라는 재앙이 테베에 내린 것은 이 도시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욕보임으로써 신들의 분노를 산 사나이(오이디푸스)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땅에서 생기고 키워진 더러운 일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씻어 없애라”고 오이디푸스에게 말한다. 더러운 일은 바로 오이디푸스의 친부살해와 친모와의 결혼이다.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재앙을 유발한 이 사나이를 찾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는 그 ‘사나이’가 정작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한다. 즉 오이디푸스가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했는데 이게 바로 중대한 과실, 즉 하마르티아에 해당한다.

연극의 끝부분에서 결국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이디푸스는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

게 된다. 즉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이었을 때 그는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 눈먼자가 되고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이었다. 한때 모든 권력과 행복을 소유한 오이디푸스는 이제 불행만이 그를 기다리는 그야말로 참혹한 운명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노스롭 프라이는 ‘비평의 해부’에서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 대부분이 히브리스(hybris)에 빠진다고 한다. 히브리스는 오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권력을 가진 비극의 주인공들은 히브리스로 인해 판단착오, 즉 하마르티아에 빠지고 파국을 초래하는 동인이 된다는 것이다. 오만(히브리스)은 판단착오(하마르티아)를 불러오고 결국 가장 행복한 인간에서 가장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오이디푸스가 겪는 오만으로 인한 추락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불행한 주인공들을 수없이 목도할 수 있을 게다.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간 권력층들의 스캔들에서 보듯이 특히 권력을 소유한 이들에게 더 자주 히브리스로 인한 판단착오로 추락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권력의 의지가 오만을 부추기고 판단착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권력자든 아니든 누구나 인간인 이상 판단착오를 할 수 있고 이게 뜻하지 않게 거대한 운명의 바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어찌면 비극의 주인공이요, 주인공이 겪는 하마르티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왕의 하마르티아와 비극적 운명은 단지 비극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어찌면 ‘지금-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운명의 비극’을 경계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